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손시키는 독약 (련재-8)

5. 문명 회귀의 대조류

(2) 서양에서 다시 새롭게 조명받는 가부좌

본 세기에 들어서 심신건강리론이 파급된 영역은 더 넓어져서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004년 9월 27일 호에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관계는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인식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미국 정부는 매년 1600만 달러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심신건강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massachusetts medical school)의 한 선택과목에서는 가부좌를 기초로 한 심신건강법을 가르쳤는데 무려 15,000명이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가부좌는 심신의 고통과 근심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미국 켄터키대학의 한 심리학자

루스 배어(ruth baer)는 예전의 과학계에서는 심신건강 영역을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왔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 간단한 가부좌를 서양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야 인식하게 되었지만, 중국 고대의 학자들은 모두 가부좌를 할 줄 알았고 또 가부좌를 해야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2004년 11월 30일 『미국과학원간행물(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심리상태가 긴장되어 있으면 로화를 촉진시킨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보도하였다. 당신이 웃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오자서(伍子胥)가 조관(照關)을 넘을 때 하루 만에 머리가 백발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22개국 법륜대법학회(佛学会)에서 중공의 송환을 견책하는 연합성명 발표

홍콩정부에서는 <중공의 검거명단>에 근거하여 비자를 거부하고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게 하며 강제적으로 송환시키는 폭력수단으로 근 1천명 파룬궁학원과 보통 민중의 입경을 저애했다. 이에 특히 22개국 28개 파룬궁법륜대법학회에서 지난 7월 5일에 홍콩정부에 연합성명을 보내어 홍콩정부가 조폭하게 파룬궁학원을 송환시킨 사건을 엄중히 견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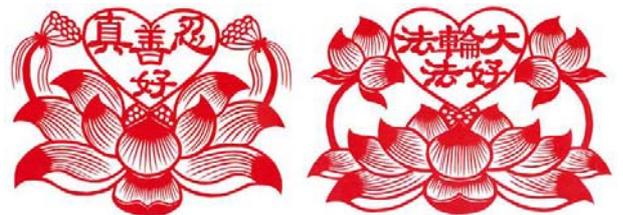
홍콩해관 약경들이 입경한 파룬궁학원들을 탄자에 싸서 끄는 차에 실어 송환시키고 있다.

태국어 <9 평공산당>이 출판발행

지난 7월 13일 오전 9시, 태국어<9 평공산당>소개회가 방콕에서 거행했다. 2004년말, 대기원시보에 <9 평공산당>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30여종 문자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출판발행되었다.



종이 공예작품 감상하기



이 작품은 70여세된 제남시파룬궁학원이 제작한 작품이다.



박해받아 세상 뜬 대법제자 김범송

도문시 대법제자 김범송(53세)은 도문시과 학원에서 근무했다. 2002년 3월말일에 그는 파룬궁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도문시 악경에게 랍치되어 모진 매를 맞았고 전기몽둥이 총격을 당하고 노동개조 2년판결을 받았다. 구대음마하로교소에 갇힌 그는 모진 박해를 받았고 2004년 4월 26일 외계와 련계를 봉쇄한 작은 독방에 갇혀 더욱 잔인한 혹형을 당했다.

2004년 여름에 석방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는 구토가 심해 좀처럼 밥을 먹을수 없었고 한쪽 다리는 부어올라 침대에서 일어날수 없었다. 2006년 5월 11일 그는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잡아당겨 펴는 침대혹형 (모형설명도)



연변 박해 소식

■ 도문시 파룬궁학원 조리당은 선후 4 차례나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노동개조집중영과 감옥에 갇혀 모진 박해를 받았다. 지난해 석방된 조리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려고 광주로 가는 도중 북경역 공안에게 붙잡혔다가 그곳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광주에 가서 일하다가 추궁해온 악경들에게 다시 체포되었다.

■ 연길시 파룬궁학원 장서혜는 (소화룡촌소학교 교원) 지난 6월 13일 교내악인들에게 비밀리에 랍치되어 노동개조 1년 3개월판결을 받았다. 집식구들이 여러차례 면회를 요구했지만 번마다 악경들에게 거절당했다.

■ 파룬궁학원 류희매는 지난 5월 12일 오후에 연길시북산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연길 시간수소에 압송되었다. 가족들이 여러번이나 면회할것을 요구했으나 번마다 거절당했다.

악보받은 안도현백하림업국 홍원목재장 서기 리보명

리보명은 파룬궁박해에 적극 참가하여 수많은 파룬궁학원들을 붙잡아 2001년 1월 15일에 연변석현 세뇌반과 간수소에 갇두어놓고 잔인한 박해를 감행했다. 악보받은 그는 심근경색에 걸려 죽었다. 모두 이렇게 되지 말기를 바란다.

북경수도강철공장의 각성한 로동자의 성명

북경수도강철공장 각성한 로동자들은 아래와 같이 엄정성명을 발표한다.

1.1999년,중공악당이 파룬궁을 탄압할때 <나는 공산당을 따라 당이 시키는대로 하겠다>라고 한 말을 작폐한다..우리는 절때 공산당을 따라 가지 않겠다.

2.중공악당이 파룬궁을 탄압한후 중공의 압박하에 쓴 파룬궁을 모독한 자료와 파룬궁을 련마하지 않겠다고 보증서에 싸인한 것은 모다 무효라는 것을 성명한다.

3.우리들이 당소조장직을 맡았을때 집필한 가짜 자료들을 전부 작폐한다.

4.지금 우리 공장은 아직도 각성한 로동자가 소수인 만큼 적당한 방법을 리용하여 진상을 모르는 로동자들에게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

5.우리 공장에서의 아직도 로동자들을 기편하고 나쁜 짓을 하는 탐관오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 중공악당에서 퇴출하기 바란다.

6.우리는 생사를 무릅쓰고 진상을 알리는 대법제자와 정의를 주장하는 고지성과 같은 위권(维权) 변호사들께, 원홍빈교수와 같은 지식인들과 과감히 퇴당성명을 발표하는 군인들께 경의를 드린다.

하루속히 중공악당의 박해를 제지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위하여 하늘이 멸망시키는 공산악당에서 탈당하길 바란다.

가짜 영웅 동존서 (董存瑞)

1948년 5월 25일 료심전역 룡화전쟁터에서 동존서는(반장) 폭약주머니를 손에 받쳐들고 도치카를 폭파시킨 <개국영웅>으로 되었다. 그러나 근 10년래 <동존서>영화 감독 곽유(郭维)는 여러차례나 공개적으로 <동존서가 폭약주머니를 손에 받쳐들고 도치카를 폭파시킨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폭로했다.

곽유는 1954년에 <동존서>영화 감독을 맡을때 여러차례나 부대에 신입하여 동존서사적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1996년 제 10기 <대중영화>,<영웅계시록>에서 곽유는 기자들이 채방할때 <동존서가 폭약주머니를 들고 희생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 제 8기의 <대중영화>에 곽유는 기자의 물음에<동존서가 폭약주머니를 추켜들고 도치카를 폭파시킨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씩여졌다. 며칠후 기자들이 방문했을 때 곽유는 <동존서가 영웅히 희생된 것은 추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